

“미국 내 한인 시니어들 6명 중 1명은 사회적 고립 생활”



▲ 한인 시니어들은 다른 아시안계들보다 사회적 교류가 부진하다. 사진=shutterstock

미국 내 65세 이상 한인 가운데 6명 중 1명꼴로 사회적 고립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시카고에 있는 비영리 재단 체인지인사이드(CI)가 발표한 ‘아시아 건강 및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주 5회 이상 사회적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노인은 15%에 그쳤다. 반면 주 1회 미만 사회적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노인은 17%에 달했다.

CI는 시카고 등 아시아 인구 분포도가 높은 5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을 비롯해 중국계, 인도계, 필리핀계, 파키스탄계 등 아시아계·하와이 원주민·태평양 섬 주민(AANHPI) 커뮤니티 5932명을 대상으로 건강 상태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한인 시니어들은 다른 아시안계들보다 사회적 활동이 적었다.

그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한인 시니어들의 영어 구사 능력 부족이 지적됐다. 한인 시니어들의 96%는 일상 생활에서 한국어를 사용했다. 반면 필리핀계 시니어는 40%만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한인의 사회적 교류가 가장 부진하다.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인 시니어의 빈곤율은 30%로 파악됐다. 이는 중국계(80%), 인도계(62%), 필리핀계(43%), 파키스탄계(36%)보다 낮은 것이다. 2023년 기준 연소득이 1인 가구 1만4580달러 미만, 2인 가구 1만9720달러 미만이면 빈곤 가구로 분류한다.

굿핸즈 재단, 저소득층 세금보고 무료 대행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저소득층, 비영여권 및 시니어를 대상으로 2023년도 개인 소득 세금보고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개인 또는 가정이 연소득이 82,000달러 이하인 사람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예약해야 한다.

서비스 제공 시간과 장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엔 애너하임의 다운타운 애너하임 커뮤니티센터(250 E. Center ST., Anaheim, CA 92805, 예약: 714-765-4500) ●폰테로사 패밀리 리소스센터(320 E. Orangewood Ave., Anaheim, CA 92802, 예약: 714-765-5400) ●웨스트 애너하임 유스센터(320 S Beach Blvd., Anaheim, CA 92804, 예약: 714-765-6400)이다.

또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굿핸즈재단 어바인 사무실(320 S Beach Blvd., Anaheim, CA 92804, 예약: 714-400-2089) ●수요일 오후 3~6시 치노 사무실(14726 Ramona Ave. E-18, Chino, CA 91710, 예약: 909-334-4794) ●목요일 오후 1~4시 가든그로브 사무실(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예약: 714-400-

2089) ●금요일 오후 1~5시 미라로마 파크 리소스센터(2600 E Miraloma Way, Anaheim, CA 92806, 예약: 714-765-6490)에서도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비대면 드롭 오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약 시 정해진 날짜, 시간에 현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금 보고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한 뒤, 5~10일 이후 서류를 찾아가면 된다.

세금 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2022년도 세금 보고서 사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소셜 시큐리티 카드, 2023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사본, 건강보험 관련 양식, 학비 관련 양식 등이다.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세청(IRS)이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현장 및 영상 교육을 통해 수료하고 IRS 자격 시험을 통과했다.

더 자세한 것은 굿핸즈재단 누리집(goodhandsfoundatio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KCS, 부모 교육 특강 ... “자녀와 친밀감 형성 능력 키울 것”

부에나파크시에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복지센터(총디렉터 엘렌 안, Korean Community Services·KCS)가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무료 부모 교육 특강을 진행한다.

특강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1시30분까지 90분 동안 zoom을 통해 진행된다.

특강의 주제는 ●2월 21일-자녀와 공감하는 법, 자존감 높이기 ●2월 28일-자녀와의 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법 ●3월 6일- 청소년 정신 건강 ●3월 6일-위기의 청소년 & 청소년 관련 서비스 정보 ●3월 20일- 학교 적응 & 미국 학교 시스템 이해 ●3월 27일-강의 전반 리뷰이며 강의는 각 분야 상담 전문가가 담당한다.

강의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인 FSP 상담사들의 실제 생생한 경험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정보도 공유할 예정이다.

강의 대상은 10대 자녀를 둔 부모이며 참여 인원은 각 강의별 선착순 30명에 한한다.

KCS 측은 “특강을 통해 학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감정 조절을 통한 다양한 표현 방법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상호 작용 및 친밀감 형성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라며 많은 한인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문의: (714) 449-1125, jebae@kcsinc.org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